▶▶ 매일 INDEX

4면
6개 대학과 ESG 공동 실천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음 9월 14일) 제288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첨단 어린이 놀이시설 기술 협조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에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생체신호를 기반으로 근력, 민첩성, 유연성, 균형감 등 발달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첨단 놀이시설이 들어선다. 도는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김영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 어린이 놀이시설' 기술협조와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18일 체결했다. 〈관련기사 2면〉

수협 납품 학교급식 35%가 수입수산물

국내산 수급 부족 등이 원인
"수급체계 개선 등 이뤄져야"

수협중앙회에서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수산물 중 35%가 수입산 수산물을 사다가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내산 수산물의 80%를 수협산지위판장을 통해 유통하는 수협에서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수산물의 비중은 전체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18일 수협중앙회의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국내 어민들을 대변해야 할 수협에서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하는 수산물 중 35%를 수입산 수산물로 납품하고 있으며, 국내 수산물 유통의 최대 조직인 수협에서 수산물 학교급식 납품 비율은 전체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입산 수산물이 학교급식으로 납품되는 이유로는 국내산 수산물 수급 부족, 국내산 품질 저하, 학생 선호도 반영 등이다.

이 의원은 "국내산 수산물을 보급하고, 어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수협에서 수입산 수산물을 사다가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협은 국내산 수산물 수급체계 개선, 학생 선호도에 맞는 품질개선 등을 통해 국내산 수산물 학교급식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협은 학교급식에 국내산 수산물 사용 의무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수부 및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라"며 "수협에서 학교급식 납품비율이 매우 저조한데, 납품비율 상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한스타일, 재외공관서도 꽃피운다

전북도, 공간연출 사업 '현재진행형'… 가봉·인도·카자흐·체코 등 7곳 완공
2015년부터 외교부와 함께 6년째 연출 현지민·재외국민들로부터 '호평' 받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전북도의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웠던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관 연출' 사업을 지난해 10월에 착수해 올해 9월 말 7개 재외공관(가봉, 페루, 일본, 인도, 카자흐스탄, 체코, 싱가폴)을 새롭게 탈바꿈시켰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도는 2021년도 네덜란드, 이집트, 멕시코, 스페인, 영국 등 5개 공관을 추가로 선정·착수해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현지 사전실측 대신 도면, 영상, 사진을 활용해 공간을 구조화하고, 기본구조화된 가상공간에 한스타일을 연출하고 있다.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관 연출' 사업은 전북도와 외교부가 함께 전통 소재를 활용한 한지공예품, 전통등, 소가구 등으로 재외공관을 한국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주로 재외국민들이 방문하는 대사관 민원실, 각국 VIP 행사를 개최하는 대회의실 등을 대상으로 공간연출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북의 한지 산업을 활성화하고, 한국과 전북의 전통문화 멋과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관 연출' 사업은 지난 2007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관저를 연출해 호응받은 것을 계기로, 2015년부터 외교부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지를 중점으로 전통문화 디자인 개발을 하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이 수행하고 있다.

그간 전북도는 6년째 26개 재외공관에 한스타일을 연출하면서, 각국 현지민, 재외국민의 호평을 받았다.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공공외교의 장으로 활용도가 날로 높아져 매년 20여 개의 재외공관의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지난 7월 26일 주가봉 한국대사관은 이 사업으로 대사관 입구 로비, 민원실, 관저를 전통한지 공예품으로 연출하고, 첫 번째 행사인 K-POP 시상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류창수 가봉대사는 "대사관 민원실은 현지 가봉인과 우리 교민뿐 아니라, 각국 외교단 등이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면서 "우리 전통미와 문화를 구현한 이 공간이 향후 우리 외교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민희 도 대외협력국장은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과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교류가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홍보의 주요 배경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전북이 주도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판소리에 대중음악 접목 '이것이 조선팝'

22~23일·29~30일 소리의 고장 전주서 '페스티벌' 비대면 개최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전통 가락에 대중음악을 접목한 '조선팝' 축제가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22일과 23일, 29일과 30일 4일간 전주한벽문화관 야외공연장에서 '2021 전주 조선팝 페스티벌'을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6면〉

'전주 조선팝 페스티벌'은 조선팝을 글로벌 공연콘텐츠로 육성하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 기획됐다. 당초 대면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공식 유튜브 채널 '조선팝TV'를 통한 비대면 공연으로 치러진다. 공연은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생중계되며, 추후에도 즐길 수 있다.

페스티벌에는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신예 뮤지션 20팀이 노래, 연주,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조선팝 공연을 선보인다.

퓨전국악 '비단'

뮤지션은 ▲22일 이희정밴드, 라폴라, 로보트로닉하모닉스, 시도, 디스이즈잇 ▲23일 k-악당, 심풀, 시:점, 모던국악프로젝트 차오름, 국악인가요 ▲29일 퓨전국악 비단, 타악&티안, 신들림[NEW SOUND], 뮤르[MuRR], 대금이누나 밴드 ▲30일 스타파쉬, 조윤성 조선POP 트리오, 놀당갑서×극단문이진규아티스트, 완전6도, 지무단 등 하루에 5팀씩 무대 위에 오른다.

공연에 앞서 '조선팝TV' 유튜브 채널에서는 사전 이벤트와 우수팀 선정을 위한 인기투표 등이 진행된다.

시는 이번 조선팝 페스티벌을 통해 코로나19로 공연 무대가 줄어든 신예 뮤지션들이 실력을 맘껏 뽐내고, 코로나블루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은 모처럼 따뜻한 위로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시는 조선팝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선팝을 홍보할 수 있는 공연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조선팝을 글로벌 공연콘텐츠로 육성해 전주를 조선팝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관계자는 "당초 조선팝페스티벌은 8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8월 공연은 취소되고 이번 공연도 아쉽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각양각색 조선팝 뮤지션들의 공연을 많은 관람 부탁드리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치고 힘든 마음을 잠시나마 위안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